

학회개관

역대 회장 · 이사장 사진 및
회고담

사진으로 보는
대한감염학회 50년

언론에 비친 대한감염학회
50년



● ● ●
학 회 개 관
 > 학회 창립과 초창기 모습



| 창립 경위 |

1. 시대적 배경

한국의 의학회는 광복되던 해인 1945년부터 창립되기 시작하여 6.25 동란이 일어나기까지 약 5년 동안에 당시 존재하던 기초 및 임상 각 학과의 의학회가 거의 모두 창립되었으며 1950년 이후로

는 새로이 분과된 학과의 학회인 정형외과(1956년), 마취학과(1956년), 신경외과(1961년), 흉부외과(1965년), 성형외과(1966년) 학회 등이 계속하여 창립되었다. 한편,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학회와는 달리 질을 중심으로 하는 학회의 독립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학회로는 결핵학회(1953년에 결핵협회로 시작되어 1961년에 결핵학회 발족)를 시작으로 나학회(1958년)가 생겨났고, 1950년대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순환기학회(1957년), 혈액학회(1958년), 체질인류학회(1958년), 화학요법학회(1958년) 등이 발족되었다. 이어 1960년대에는 대한감염학회(1961년), 핵의학학회(1961년), 소화기학회(1961년), 기관식도학회(1966년), 당뇨병학회(1968년) 등이 창립되었다. 대한감염학회는 질환별 학회가 생기기 시작한 초창기에 선두그룹의 하나로서 발족하게 된 것이며 이는 감염학계가 훌륭한 선배를 모시고 있던 덕분이라 하겠다.

2. 인적배경

대한감염학회가 창립되던 시기에 ‘감염’이란 생소한 용어이고 감염병과 전염병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도 많지 않은 시기였다. 더욱이 감염병학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는 인사는 매우 적었다고 하는 것이 옳고 따라서 학회를 만들려는 노력은 극히 일부의 선도자만의 생각이어서 학회창립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학회 발족 당시에 임상各科에 감염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는 있었지만 감염질환을 전공하거나 전공하려는 의사는 거의 없었고, 이 당시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인사는 대부분이 과거에 전염병(주로 법정전염병)을 공부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감염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는 하였지만, 반면으로는 감염병은 전염병 학자의 전공분야이고 전염병에 관심이 없는 일반 의사들은 감염병과 관계가 없다는 형태의 편견이 생긴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어쨌든 감염병학을 전공하려는 의사가 매우 적고 대학에서조차 감염학을 강의할 전공교수가 없는 시대이었던 만큼 감염학회의 창립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에 감염학회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 학회 창립 |

1. 발기

1961년 10월 말로 기억되는 어느 날 전종휘 교수께서 학회창립취지서의 초안을 써 오라고 하시어 필자는 처음으로 학회창립을 알게 되었다. 취지서 초안을 보신 다음 ‘大韓感染病學會創立趣旨書’라는 공동명의로 된 발기문서가 발송되었다.

학회의 창립은 창립대회 이전에 발기인들이 모임을 갖고 결정된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지만 당시에 발기인회를 생략한다는 내용이 취지서에 기록되어 있다.

환언하면 전종휘 교수께서 奇龍肅 교수(서울대 미생물), 李東沂 교수(서울대 소아과) 등 몇 분과 의논하신 다음 발기인이 될 만한 분들의 개별 승낙을 받아 발기인회는 생략하고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大韓感染病學會 創立 趣旨書

現代醫學의 發展으로 先進諸國에서는 急性, 慢性의 感染疾患이 急速히 減少되었음에도 不拘하고 韓國에서는 아직도 死亡의 主因이며 가장 높은 罹病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現狀입니다.

해마다 季節마다 무슨 定期的 行事처럼 急性感染疾患의 大流行이 일어나고 우리의 周邊에는 有名無名의 大小感染이 너무나 많아서 國民은 介意조차 하지 않는 現象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現實이지만 感染性疾患이 차지하는 比重에 比하여 感染性疾患의 研究는 너무나 微微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이 感染性疾患의 豫防, 治療 및 其他 研究發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彼此 協力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질 수 있을까하여 感染病學會의 創立을 發起하는것이오니 同學諸位의 많은 協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發起人

奇龍肅	金仁達	金榮澤	金孝圭	金相泰	金鎮祚	金燦洙	權彝赫	南廷直
李東沂	李承薰	李溶昇	李燦世	李揆明	李鎬汪	李鏞珍	李種承	李載汶
李憲鶴	元種德	任明宰	林宜善	林正燮	魯炳鎬	朴利甲	朴鎮泳	朴鴻直
朴亨種	鄭樂燮	白南振	宋永祚	沈相煌	柳 駿	張翼軫	徐仁銖	朱仁鎬
蔡泰錫	全種暉	全燾基	鄭喜泳	洪淳國				

追伸

發起人會를 省略하고 創立總會를 下記와 같이 開催코저 하오니 掃萬枉臨하시기를 바랍니다.

日時 1961年 11月 11日(土曜日) 12時 30分~13 時30分

場所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附屬病院 A講義室

발기인 총 41명을 보면 내과학 18명(10명은 전종휘 교수 문하생), 소아과학 4명, 미생물학 12명, 예방의학 7명으로 되어 있다. 소속별로는 서울대 12명, 연세대 3명, 고려대 4명, 이화여대 3명, 가톨릭대 2명, 경북대 1명, 보사부 4명, 전직 순화(順化)병원장(서울시립 전염병원) 2명과 기타 10명(전종휘 교수 문하생인 개업의, 봉직의 등)이다.

따라서 학회의 창립이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되었고, 전종휘 교수님이 중심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1961년 11월 11일, 서울의대 부속병원 A강당에서 열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 1) 회칙토의: 제출된 초안을 토의한 다음 통과 시켰으며 수정할 것이 있으면 차후에 평의회에서 수정토록 한다.
- 2) 평의원선출: 학회운영의 중심이 될 평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의장인 이동기 교수(서울대)에 의하여 평의원 전형위원 5명이 지명되어 평의원을 선출하였다. 전형위원은 김인달 교수(서울대 예방의학), 이승훈 교수(서울대 미생물학), 이찬세 교수(가톨릭대 내과학), 임의선 교수(연세의대 소아과학), 전종휘 교수(서울대학 내과학)이었다. 창립된 학회의 운영을 책임질 평의원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공분야 별로는 미생물학 8명, 예방의학 3명, 병리학 1명, 생화학 1명, 기생충학 1명으로 기초의학 분야가 과반수이어서 앞으로 학회가 지향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임상은 내과 6명, 소아과 2명, 비뇨기과 1명이다. 소속 기관별로는 각 대학의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지방대학도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대학 중심임이 뚜렷하게 나타나 서울대 12명, 연세대 2명, 가톨릭대 2명과 경북대, 부산대, 이화여대 등이 각각 1명이고 보사부관계 등 기타 3명이다.
- 3) 기타: 창립 총회에 참석할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요법학회 총회가 끝난 다음 그 자리에서 계속하여 창립총회를 열어 참가 인원이 약 70명이었고 창립총회의 사회는 창립총회의 경과보고를 맡았던 이동기 교수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학회 사무실은 서울의대 전종휘 교수실에 두기로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평의원 23명

서울대(12명): 기용숙, 김인달, 권이혁, 이동기, 이승훈, 이규명, 노병호, 전종휘, 이성수, 이진순, 서병설, 주근원	가톨릭대(2명): 장익진, 이찬세
연세대(2명): 남정직, 임의선	경북대(1명): 전도기
고려대(1명): 주인호	이화대(1명): 김찬수
부산대(1명): 유방현	
기타: 임명제, 이종승, 정희영	

3. 제1회 평의원회

제 1회 평의원회는 1961년 11월 24일, 서울의대 교수회관에서 12명(평의원 23명의 과반수)이 참석하여 창립총회에서 평의원회에 위임된 회칙에 대한 토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되었다.

- 1) 학회명: 창립 총회때에 잠정적으로 사용 된 ‘대한감염병학회’는 임상에 치우친 명칭이니 ‘대한감염학회’로 하자는 김인달의원의 제안을 받아 들여 ‘대한감염학회’로 정식 결정되었다(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5명).
- 2) 임원 임기: 임원과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결정되었다.
- 3) 회장 선거: 평의원회에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 회칙에 따라 투표로 실시하였다. 2명을 연기하여 최다 투표자를 회장으로,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하기로 하였다. 투표결과 임명재 9표, 전중휘 5표, 이동기 4표, 김인달 3표, 기타 1표씩 3표가 나와 회장 임명재, 부회장 전중휘로 결정되었다.
- 4) 기타 임원 지명: 신입회장은 실무를 담당할 임원으로 총무부장에 이동기, 총무부원에 노병호, 정희영을 지명하고, 학술부장에는 김인달, 학술부원에는 이규명, 권이혁을 지명하였다.

| 학술활동 |

창립총회와 제1회 평의원회를 거쳐 학회장을 위시한 임원진과 평의원이 결정되어 대한감염학회는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학회로서의 학술활동이 가능해졌다. 1961년 12월 7일에는 대한의학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 의학협회의 정식회원이 되었다(분과학회 협의회 발족이전).

1. 학술집회개최

12월에 학회가 창립되어 학술대회는 다음 해인 1962년 말경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처음 집회는 1962년 10월 12일에 뇌염에 관한 좌담회를 서울의대에서 개최하였고, 이때 연자는 전중

휘(서울의대), 권이혁(서울의대), 김경호(국립보건원), 정희영(국립보건원)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열대의학’ ‘매독’ ‘장티푸스’ ‘콜레라’ 등을 주제로 하는 집회가 계속하여 개최되었다(학술대회에서도 심포지움이 열렸지만 독립된 집회는 아니었다).

2. 학술대회(추계학술대회)

창립 다음해인 1962년 12월 18일에 1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때는 대한감염학회 단독으로 학술대회를 갖기에는 힘이 부쳐서 대한미생물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하였지만 실제로 모든 주도권은 대한미생물학회에서 가지고 있었다. 이때 대한감염학회 측의 연제수는 8개이었다. 1963년의 2회 학술대회부터는 단독으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이후로 다른 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1회 대회를 제외하고는 공동학술대회의 주도권을 대한감염학회가 가지고 운영하였다.

3. 춘계학술대회

초창기에는 추계학술대회 뿐이었으나 대한의학협회 종합학술대회가 봄에 열리기 시작하면서 춘계학술대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춘계대회는 정기학술대회에서 공동명의로 참여하던 학회측에서 자신들이 춘계대회를 주관하고 심포지움을 갖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어 춘계학회는 공동으로 개최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4. 학술대회 개최에 따르는 애로

1) 발표연제 부족

현재는 구연으로 제출하여도 지상발표나 포스터로 돌려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가 어렵지만 초창기에는 발표될 연제가 없어서 학술대회를 열기 어려웠다. 대한감염학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이 아주 적었던 관계로 회원들의 연제는 대부분이 모 학회(기초 및 임상 각 과학회)에서 발표된 것이고 처음부터 대한감염학회로 제출되는 연제는 거의 없다가피 하였다. 학술대회는 열어야겠는데 연제는 없으니 학회운명을 맡은 실무진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서 전중휘 교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신 것이 다른 모 학

회에서 발표된 연제의 재탕이다. 모 학회들은 가을에 학술대회가 열리고 기타 군소학회(?)는 11월 말을 전후하여 학회가 열리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그 해 각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감염관계 논문을 찾아 저자에게 감염학회에서 한번 더 발표하여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다. 표면상의 명목은 대한감염학회 회원들에게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학회에서 발표된 관련논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발표자에게는 감염 전문가들의 비판과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체면이 구기고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어려운 일을 전종휘 교수께서 전담하셨으니 고통이 많으셨을 것으로 짐작된다.

2) 학회 참석인원 부족

억지로 연제를 모아 학술대회를 열어도 관심있는 회원이 적으니 참석인원이 많을 수가 없고, 특히 학술대회 시작 시간에는 발표자와 진행요원 및 관련자만이 있으니 학술대회 기획자로서 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학술대회가 서울의대와 가톨릭의대에서 많이 열린 이유의 일부는 진행을 그 대학에서 맡아준다는 점도 있지만 회원이 아닌 병원 직원을 학회에 동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는 웃지 못할 현실이 참작되었던 것이다.

5. 학회지 발간

1) 발간경위

학회가 생긴 다음 이력저력 하다 보니 여러 해가 지나갔다. 학회에 학술지가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회장(전종휘 교수)께 학회지 발간을 말씀드리니 비용걱정을 하셨다. 광고 몇건만 얻으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추진하여 보라고 하셔서 1969년에 창간호가 나올 수 있었다. 학회지 발간에 수반되는 경리관계는 전종휘 교수께서 전담하시었다.

2) 발간횟수 증가

창간 당시 년 1회 발간되던 학회지는 원고관계와 경리관계 문제로 답보상태를 계속하다 15년이 지난 다음인 16권(1984년)부터 일년 2회로 발간횟수를 늘렸고 19권(1987년)부터는 일년 4회로 늘리면서 그런 대로 학회지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년 4회로 늘릴 때에는 필자가 회장직을 떠나기 이전에 성사시키려고 다소의 무리를 무릅쓰고 실행에 옮겼다.

3) 애로사항

시기적으로 항생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때여서 그런 대로 제약회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지 않아 경리 문제에 애로는 많지 않았지만, 제약회사는 학회나 잡지를 보고 광고를 준다기보다는 회장 개인에 대한 예우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나 학회지 발간의 가장 큰 애로는 원고부족이었다. 지면의 대부분을 청탁원고로 메운다고 하더라도 학회지의 체면이 있어 원저를 게재하여야 하나 원저를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려웠던 이유로는 년 1회 발간되는 학회지에 원저를 게재하면 과연 독자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고 또 당시는 모 학회 격인 임상 각학과에서 발간하는 자신들의 학회지에도 원고가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의 응시자는 응시과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제출해야만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었던 사실도 원고부족의 큰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불리함을 각오하면서도 [감염]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골수회원(?)이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원저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지금도 감사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 희 영(제 9~13대 회장)